

설문지 분석법에 의한 담혈어한열습조병기의 표준 증상 및 남녀차이 연구

오명택 · 엄현섭 · 김종원¹ · 이인선² · 지규용*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병리학교실, 1: 사상의학교실, 2: 부인과학교실

Study on Standard Symptoms and Gender Differences of Phlegm, Blood Stasis, Cold, Heat, Dryness Pathogenesis on Questionnaire Analysis

Myoung Taek Oh, Hyun Sup Eom, Jong Won Kim¹, In Seon Lee², Gyoo Yong Chi*

Department of Pathology, 1: Department of Four Constitutions Medicine, 2: OB&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eui University

In order to establish the standard symptoms in men and women and highly frequent symptoms(HFS) of Phlegm (痰) Blood Stasis(血瘀) Cold(寒) Heat(熱) Wet(濕) Dryness(燥) pathogenesis(病機), 969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through Cronbach alpha value and Pearson's correlative efficient. The Cronbach α value of each pathogenesis was Phlegm(0.83500) · Cold(0.823272) · Heat(0.816344) · Dampness(0.760292) · Blood Stasis(0.692551) · Dryness(0.672783) respectively. Through this study of frequency number of symptoms, followings were found that the physiological differences of men and women made some differences of main symptoms in each pathogenesis, and the differences of several clinical symptoms in a pathogenesis were resulted from the difference of specimens between textbook and this study.

Key words : Pathogenesis, High frequency symptom, Standard symptoms, Questionnaire Analysis, Gender difference

서론

변증논치체계와 관련하여 중국에서는 중의현대화작업이 이루어진 1950년대 이후 중의약학계 공동으로 사용하는 표준교재가 발간되면서 지속적으로 정리되었다. 1960년에 第一版 17門課의 中醫藥學教材가 출판되었고, 1963년에 第二版 中醫統編教材가 출판되었으며, 1975년에 三版, 1978년에 四版, 1984년에 第五版 統編教材가 나온 뒤 教材의 편찬권이 各地區와 高等中醫藥院으로 내려가면서 聯合 또는 獨立教材가 대량으로 나오기 시작하였다. 1995년에 다시 第六版 統編教材가 나오고, 2002년에 第七版(新第一版), 2004년에 第八版(新第二版)교재가 출판되었다¹⁾. 이 과정에서 94년과 97년, 2002년에 국가적인 변증표준화체계도 작성되었다^{2,3)}.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부터 1997년까지 한국한의학연구소의 주관으로 변증표준화작업이 진행되었는데 주로 중국의 연구 성과를 참고하여 결과물⁴⁾이 출판되었으며 이러한 체계가 병리학 교육에도 반영되었다. 그러나 국내의 임상현실에서는 아직 <東醫寶鑑>과 <方藥合編>이 주요한 텍스트를 이루고 있으며, 證의 분류도 인위적인 기준에 의해 세분화시키지 않았고, 사상의학도 동시에 강의되고 있어서 여러 변증이론들이 혼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점이 현재의 대학교육과 임상교육 및 임상재교육시 학생과 교수 모두에게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교육당사자의 관점에서 볼 때 기존 <東醫寶鑑>식 변증과 병리학교재에서 채택한 중의변증이 본질적인 내용에서는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證의 분류체계와 용어, 설명방식, 이데올로기 등의 차이로 인해 미세하게 불일치가 존재하며, 또한 이렇게 설정된 현재의 변증항목들이 임상실제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제 어느 정도로 證을 세분화하는 것이 실제 임

* 교신저자 : 지규용, 부산시 부산진구 진리1로 100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cgyu@deu.ac.kr, · Tel : 051-850-8659

· 접수 : 2007/03/06 · 채택 : 2007/04/13

상에서 가장 효율적이며, 단위 證에 배속된 증상들이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證에 배속된 증상들이 생리적 특성을 달리하는 男女에서 얼마나 다르게 나타나며, 임상적으로 가중치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고, 그러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밝히고자 한다.

이에 다수의 피검자들을 대상으로 <東醫寶鑑>과 부인과교재 및 병리학교재 등의 증의변증에 근거한 문헌으로부터 수집한 증후들에 대해 설문지 照査를 실시하고 그 출현 여부 및 증상의 정도를 표시하도록 하고, Pearson 상관계수에 의해 병기내부에서의 症狀間 相關性을 판단하는 Cronbach alpha를 구하여 각 증상의 重要도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은 기존의 여러 서적에서 변증지표로 서술된 병기별 主次症 혹은 임상증후와의 비교를 통하여 보다 중요하고 빈출하는 증상이 무엇인지, 남녀별 증상 표현의 차이는 어떤지 등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이로써 변증이론이 더욱 간명하고 안정된 체계로 발전할 수 있으며 痰, 瘀血, 寒, 熱, 濕, 燥 病證에 대한 임상적 치료방법의 결정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재료 및 방법

이^{5,6)} 등은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부인과교실에서 한의 진단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방부인과 진단 프로그램' 설문지(이하 '설문지')를 통한 진단방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지^{7,8)} 등은 여기서 최근에 얻어진 설문자료들을 근거로 16가지 기본 病機 중에서 五臟病과 氣血陰陽虛 및 氣滯의 主要病機를 추출하여 기존 교재의 변증지식과 비교하였다.

이어서 본 논문에서는 痰 血 瘀 寒 熱 濕 燥 病機의 증상패턴을 비교조사하기 위하여 동의대학교 남녀학생 534명을 대상으로 2005년 12월 설문지검사를 실시하였으며, 2005년 11월부터 2006년 1월까지 동의의료원 한방병원에 건강진단을 위해 내원한 남녀 435명의 설문결과를 취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다양한 연령의 男女를 대상으로 조사된 연령분포와 병기별 개체 수는 다음과 같다(Table 1, 2).

Table 1. Age distributions of subjects

성별\연령	~10	11~20	20~30	31~40	41~50	51~60	60~	계
여	39	139	236	87	87	49	12	649
남	15	60	163	42	22	14	4	320

Table 2. The number of questionnaires of men and women according to each pathogenesis

	혈어	한	열	습	조	담
Women(649명) 명/%	79 12.17	273 42.06	72 11.09	303 46.69	191 29.43	139 21.42
남자(320명) 명/%	15 4.7	49 14.38	101 31.56	89 27.81	40 12.5	12 3.8

통계분석방법은 문항간의 내적 일치도를 비교하는데 사용하는 크론박 알파(Cronbach's alpha)와 문항간의 상관관계를 구하는데 이용하는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를 구하기 위하여 SPSS 12.0을 사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담

Table 3. Cronbach alpha coefficient except corresponding variance in phlegm pathogenesis.

Phlegm			
Women		Men	
병증문항	Cronbach α	Question No	Cronbach α
q85	0.786773	q85	0.807001
q129a	0.787795	q129a	0.815618
q129	0.794270	q109a	0.824447
q96	0.800455	q129	0.828601
q84	0.803619	q84	0.828697
q22	0.814222	q96	0.834711
q109a	0.815086	q22	0.832596

* Standardized Chronbach α coefficient : Women :0.824078 Men :0.8459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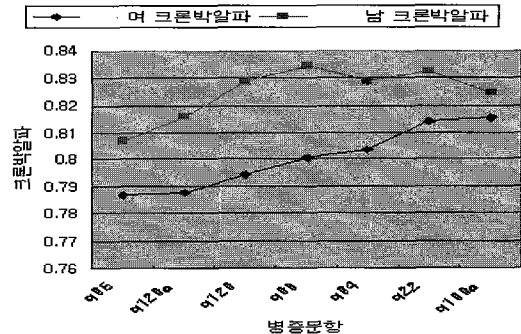


Fig. 1. Gender difference of phlegm pathogenesis

한방병리학교재⁹⁾에서는 痰飲證의 주요증상을 頭重頭痛, 胸悶, 嘔惡, 咽喉有物梗塞感, 昏蒙, 腫塊, 脈滑 등이라 하였으며, 증의진단학교재¹⁰⁾에서는 痰證을 咯痰, 神昏, 癲狂, 喉中痰鳴, 肢體麻木, 半身不遂, 癩癧, 氣癭, 乳癖, 肌膚痰核, 咽喉異物感 등이라 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神昏이나 癲狂을 한의 임상에서 흔히 보기는 어렵고, 있다 하더라도 痰을 수반하는 것이지 本態가 痰證이라 하긴 어렵다. 또한 다른 半身不遂, 癩癧, 氣癭, 乳癖 등도 痰證에 자주 나타나는 것은 아니어서 痰證으로서의 변증의의를 가진 임상적인 임상증상을 중심으로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

設問紙 結果 Fig. 1에서보면 全般的으로 각 設問 問項들에 대해 男子들이 女子들보다 一貫性 있게 應答하였고 辨證項目 내에서의 全體的인 病症項目의 重要度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痰病으로 제시된 증상들은 男子들에게 有意性 있게 表現된다고 할 수 있으며 痰病機의 平均 크론박 알파 값은 0.835000이었다.

項目별로 釋해보면 q85(자주 어지럼증을 느낀다.)와 q129a(명치부분이 不便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린다.) 및 q129(가슴이 두근거린다)가 痰病中에서 차례대로 男女 모두에서 유의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痰濁이 清竅를 上攻하면 精神이 不明하여 頭昏目眩이 일어나고, 脾失運化하여 水濕이 不化하면 惡心이 생기고, 위로 攻心하면 心悸의 症狀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q96(오슬오슬 추우면서 몸살기운이 늘 있는 편이다.)은 본래

<東醫寶鑑·內景痰飲·二陳湯>의 方解에 “通治痰飲諸疾 或嘔吐惡心 或頭眩 心悸 或發寒熱 或流注作痛”이라고 한 언급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런데 여기 있는 嘔吐惡心 或頭眩 心悸는 본 조사에서도 가장 의의가 있어서 이 증상들과 함께 나타난다면 痰病으로 진단하는 의의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q96이 홀로 나타난다면 肝氣鬱滯나 肝鬱化熱, 熱入血室, 膈鬱痰擾, 少陽病, 癰疽 등의 다양한 경우에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痰症으로서의 意義가 적게 된다. 寒熱은 본래 ‘열이 올랐다 식었다’ 하는 증상이고, 流注作痛은 q109a와 유사하게 ‘경맥과 골절을 따라 옮겨 다니면서 통증이 있는 것’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임상적인 관찰을 근거로 전신적인 근육통으로 보아 q96과 같이 문항을 작성한 것이지만 더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q84(앉았다 일어날 때 眩氣症이 잘난다.)는 q85와 類似한 증상으로 男女 모두에서 비슷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q22(자주 메스껍다)는 脾胃病에도 중요한 증상이어서 男女 모두 병기지표 기여도가 높지는 않았으나 타 증후표지와 연관되면 역시 일관되고 유력한 근거가 된다. q109a(痛症部位가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傾向이 있다)는 女子에 비해 男子에게서 유의성이 높게 나타났다.

증상간의 비교를 보면 女子에게는 心悸와 몸살기운을 느끼는 것이 상대적으로 많고, 男子에게는 痛症部位가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症狀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男子가 더 動的이고 筋骨이 발달한 것과 女子가 多氣鬱하여 쉽게 情傷血滯한다는 점¹¹⁾과 유관한 것으로 解釋된다.

한편 症狀指標 相互간의 相關關係를 보면 q84와 q85가 男女에서 모두 매우 關係가 깊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設問 자체가 비슷한 뜻을 가졌기 때문인 것으로 判斷된다. 반면 女子에 있어서 q84와 q96 사이에 關係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마도 q96이 오히려 寒症 반응과도 가깝기 때문인 것으로 思料된다. 男子에서는 q84와 q109a사이에 關係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담병기의 증상지표로는 眩暈과 心悸, 胸悶惡心, 寒熱, 流注痛 등의 순서로 男女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咽喉異物感이나 咯痰 등은 病機보다는 증상 자체이고, 痰核腫塊 半身不遂 神昏이나 癲狂 등과의 相關성은 유관 질병의 병인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2. 혈어

病理學 교재에서 血瘀證은 疼痛, 腫塊, 出血, 寒熱晝輕夜重, 腹部腫塊, 腹部不快感, 善忘, 如狂, 口中燥渴不欲飲, 口脣爪甲青紫, 舌質紫暗, 肌膚甲錯, 脈細澀或結代, 大便漆黑, 皮膚紫癍 等¹¹⁾이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것은 <傷寒論>과 <金匱要略> 및 <直指方>과 <醫學入門> 등의 이전 시대 인식을 고루 반영한 것이어서 별 차이가 없다.

血瘀證에 대해 설명한 文獻들을 종합해보아도¹²⁾ 역시 마찬가지로 凝滯로 인한 疼痛과 腫塊가 가장 많으나 男女의 주요 증상이 다르므로 해석에 주의하여야 한다. 瘀血病症을 반영하는 平均 크론박 알파 값은 0.692551이었으며 男女 모두 全般的으로 다른 병기항목에서보다 낮았다. 그런데 男女간 크론박 알파 값 분포, 즉 증상의 병기 내 유의성은 비슷하였다.

q104(아랫배의 한 곳이 자주 아프다)와 q108(아랫배가 자주 당기고 아프다)은 남녀 모두에서 가장 頻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下腹의 血液循環障礙와 血行速度減少의 病理狀態를 包括한다.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下腹痛이나 牽引痛이 많은데 이는 小腸氣滯나 寒滯肝脈, 즉 氣滯병기와 寒病機에서 생기는 症狀과의 鑑別이 必要하다고 생각된다.

여자는 하복증상과 함께 q155b(月經量이 남들보다 많으면서 색깔이 어둡다)와 q50(大便이 검다) 및 q155(生理痛이 심한 편이다)와 q155a(月經量이 적으면서 검은 덩어리가 많은 편이다)가 함께 나타나면 腸道와 胞宮에까지 血瘀가 존재함을 의미하여 유의성을 높여준다. 또한 q147(입술이 마르고 잘 벗겨진다)은 보통 熱入營血하거나 營陰을 전작하거나, 혹은 陰虛나 燥證에서도 發生할 수 있으므로 鑑別이 必要하지만, 여기서는 血瘀로 인해 新血이 생성되지 못하고 水津이 상승하지 못하여 脣肉을 자양하지 못하므로 脣乾증상이 생기는 것이다.

男子에게 있어서 q103(아랫배가 단단하고 누르면 아프다)은 q104나 q108과 유사한 것으로 下腹部에 존재하는 모세혈관의 혈액유통체나 정맥회류의 정체와 관련된다. 또한 q148(아픈 症狀이 낮에는 가볍고 밤에 심하다)과 결합하여 보면 골격근육의 활동이 적어지는 시기에 증상이 심화됨을 알 수 있으므로 의미가 문합된다. q28(입이 잘 마른다)은 q147(입술이 마르고 잘 벗겨진다)과 함께 하복부의 瘀血로 인해 水津이 상승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결국 혈액순환장애의 기전과 연관된다. q50(대변이 검다)은 남자의 경우 직접적인 下焦腸道の 出血과 관계있어서 瘀血을 나타내는 직접적인 표지이므로 여자의 월경증후와 같은 의의를 갖는다.

종합하여 보면 下腹痛有定處가 男女 공히 가장 높게 나타나고 女子에게는 월경관련 증후인 月經色黑, 生理痛 등과 함께 大便黑色, 口脣乾燥, 晝輕夜重 等の 症狀이 나타났다. 男子는 下腹牽引痛 및 堅硬壓痛, 晝輕夜重, 口脣乾燥, 大便黑色 등의 순으로 血瘀病機에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기존 변증교재의 내용과 비교해 보면 肌膚甲錯이나 口脣青紫, 如狂發狂 등의 증상은 흔히 나타나는 증상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남녀의 각 증상들을 체질이나 성별 조건에 따라 몇 가지로 결합하면 진단시의 편의를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Table 4. Cronbach alpha coefficient except corresponding variance in blood stasis pathogenesis.

Blood stasis			
Women		Men	
Question No	Cronbach α	Question No	Cronbach α
q104	0.602663	q104	0.618699
q108	0.617971	q108	0.623260
q155b	0.619194	q103	0.666421
q50	0.636813	q148	0.668628
q155	0.640026	q28	0.718675
q147	0.640848	q147	0.729690
q155a	0.654169	q50	0.732668
q27a	0.663196		
q28	0.668867		
q148	0.686573		

* Standardized Cronbach α coefficient : Women : 0.669194, Men : 0.7159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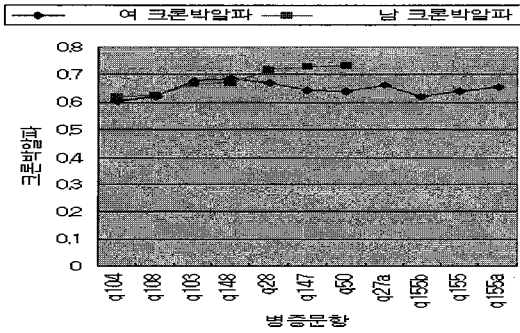


Fig. 2. Gender difference of blood stasis pathogenesis

3. 한

Table 5. Cronbach alpha coefficient except corresponding variance in coldness pathogenesis.

Cold			
Women		Men	
Question No	Cronbach α	Question No	Cronbach α
q65a	0.795381	q65b	0.761658
q106	0.799533	q65a	0.767570
q65b	0.803098	q66	0.783961
q43	0.810210	q44b	0.784025
q44b	0.819767	q106	0.785069
q141	0.829231	q43	0.803056
q66	0.831495		
q48a	0.833190		

* Standardized Cronbach α coefficient : Women : 0.835043, Men :0.8115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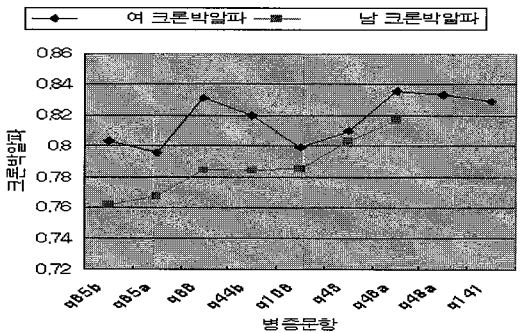


Fig. 3. Gender difference of coldness pathogenesis

병리학교재에서 寒證은 惡寒喜暖, 口淡不渴, 面色蒼白, 肢冷倦臥, 小便清長, 大便稀溏, 舌淡苔白潤滑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외에 腕腹冷痛, 口爪甲紺色, 脈緊遲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있다. <景岳全書·傳忠錄·寒熱>¹³⁾에서는 “寒在表者, 爲憎寒, 爲身冷, 爲浮腫, 爲容顏青慘, 爲四肢寒厥. 寒在裏者, 爲冷嘔腸鳴, 爲惡心嘔吐, 爲心腹疼痛, 爲惡寒喜熱. 寒在上者, 爲吞酸, 爲膈噎, 爲飲食不化, 爲噎腐脹噦. 寒在下者, 爲清濁不分, 爲瀉痛泄, 爲陽痿, 爲遺尿, 爲膝寒足冷”이라 하여 부위별로 증상을 나열하고 있다.

Fig. 3에서 보면 全般的으로 寒病機에서 男子보다 女子의 크론박 알파치가 높아 相對的으로 病證發顯의 유의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寒症의 平均 크론박 알파 값은 0.823272이었다.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q65a(손이 많이 차다)와 q65b(발이 많이 차다)가 男女 공히 寒病症을 나타내는 重要한 症狀으로 조사되

었는데 이는 q66(날씨가 많이 추워지면 손발이 차면서 파랗게 된다)과도 문합되며 상관성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內寒으로 인하여 陽氣가 肢末에까지 도달하지 못하므로 手足肢冷을 나타내는 것이다.

女子에게 있어 q106(아랫배가 차다)과 q43(찬 것, 찬 우유를 먹으면 大便이 물러진다)은 男子보다 相對的으로 重要하게 나타났다. 이는 下腹에 子宮과 자궁부속기 등의 많은 혈액을 필요로 하는 기관을 가지고 있어서 內寒으로 인한 血관수축시 循環障礙가 相對的으로 쉽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된다.

q44b(찬 물이나 찬 우유는 먹기 싫고 억지로 먹으면 꼭 설사를 한다)는 脾陽虛로 인한 便溏泄瀉 경향을 나타내는데 男女에서 고르게 나타났다. q141(외음부가 냉하다)은 下腹冷症이나 帶下等 女性 固有의 症狀이므로 남자에게는 없었고, q48a(大便이 무르다가 便秘가 되기도 하는 등 고르지 않다)는 女子에게서만 유의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寒症뿐만 아니라 七情變動이나 감각수용성과 관련되며 부분적으로 氣滯와도 관련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症狀指標 상호간의 相關關係를 보면 女子에 있어서 q65a와 q65b가 매우 關係가 깊었는데 이는 냉증의 表現이 수족 말단에 同時적으로 나타남을 의미하며, 男子에서는 q43과 q66사이 關係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內寒으로 나타는 경우와 外寒으로 나타나는 것은 항상 同時적이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本 結果에서는 手足冷症이 男女 공히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飲冷則 便軟或瀉, 그리고 下腹冷하는 증상이 나타났다. 女子에게는 下腹冷症과 陰部冷症이 나타났고 男子에게는 차가운 날씨로 인한 手足冷症이 나타났다. 神經性的腹痛과 便溏 항목은 男女 공히 排除되었다. 또한 統計上으로 寒病機를 나타내는 症候群들은 男女에서 出現頻度상 女子에서 더 有意性이 높았는데 이는 한의학이론에서 男陽女陰으로서 陰과 寒이 親合하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以上으로부터 寒病機 主症으로는 手足冷症, 下腹冷症, 觸寒則手足青紫, 飲冷即便軟或瀉, 畏寒喜溫, 外陰冷 등이며 기존의 교재와도 대체적으로 잘 문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열

Table 6. Cronbach alpha coefficient except corresponding variance in heat pathogenesis.

Heat			
Women		Men	
Question No	Cronbach α	Question No	Cronbach α
q57a	0.743805	q57a	0.818612
q57	0.744532	q57	0.821190
q58	0.791218	q33	0.826340
q51	0.766950	q63	0.831117
q33	0.769692	q58	0.833639
q64	0.772454	q64	0.834040
q52	0.776866	q26	0.835041
q30	0.778522	q30	0.836820
q60	0.780884	q60	0.842193
q63	0.781566	q51	0.842398
q26	0.782347	q52	0.849076

** Standardized Cronbach α coefficient : Women :0.785954, Men :0.8467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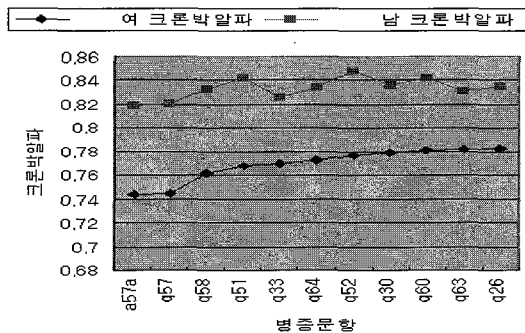


Fig. 4. Gender difference of heat pathogenesis

병리학교재에서 熱證은 “주로 發熱喜涼, 口渴飲冷, 面紅目赤, 煩躁不寧, 小便短赤, 大便燥結, 舌紅苔黃而乾燥, 脈數” 등을 열거하였고, <景岳全書>에서는 “熱在表者, 爲發熱頭痛, 爲丹腫斑黃, 爲揭去衣被, 爲諸痛瘡瘍. 熱在裏者, 爲膈悶脹滿, 爲煩渴喘結, 或氣急叫吼, 或躁擾狂越. 熱在上者, 爲頭痛目赤, 爲喉啞牙痛, 爲逆衝上, 爲喜冷舌黑. 熱在下者, 爲腰足腫痛, 爲二便秘澀, 或熱痛遺精, 或澀混便赤”이라 하여 역시 寒證과 같이 부위별로 설명하였다.

이렇게 보면 文獻에서 가장 重要하게 다루어진 因子는 發熱인데 이는 병적인 것이어서 발병 이전의 內熱을 표현하는 일반적인 지표가 못되므로 熱의 자각증상지표들로 대체하였다.

Fig. 4에서 보면 全般的으로 각 設問問項에 대해 男子들이 女子들보다 一貫性있게 應答하였고 辨證項目 내에서의 全體의인 病症項目의 有意성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증상간의 남녀차이가 없다는 의미이고, 寒病機가 女子에게서 대체로 有意성이 높았던 점과 비교하면 有意性이 있는 결과이다. 熱病機의 平均 크론박 알파값은 0.816344이었다.

男子와 女子 모두 q57a(平素에 열이 많아서 옷을 얇게 입을 편이다)와 q57(平素에 熱이 많은 편이다)이 頻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平素에 體質的 素因으로 熱이 많은 사람들은 체온계상 열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熱症을 자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q33(최근 속이 답답하고 渴症이나서 찬물을 자주 마신다.)은 女子보다 男子에게서 有意性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陽的인 男子가 陰的인 女子보다 직접 冷水를 찾아 갈증을 해결하는 반응을 보인다는 의미이다. q63(손발이 따뜻하다)도 女子에 비해 男子가 頻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內熱을 직접 四肢로 運行하여 手足溫을 나타내는 것이다. q26(목이 타서 물을 자주 마신다)과 q30(물을 마시면 따뜻한 것보다 시원한 물을 좋아한다) 및 q33은 서로 유사한 증상으로 부합된다.

q58(평소 이불을 잘 안 덮고 잔다)은 남자보다 여자에서 有意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직접 冷飲을 통하여 除熱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이불을 안 덮는 수동적인 증상만 나타난 것으로 熱症이 있는 男女에게 비슷하게 나타난다. q51(평소에 몸에 땀이 많다)은 腠理의 치밀함 여부와 관련되는데 男子보다 女子에게서 상대적으로 더 有意성이 있는 증상으로 나타났다. 기존 교재에서는 표준증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q64(주로 손바닥에 熱感을 많이 느낀다)는 q60(더위는 잘 타지만 추위는 안타다)보다 男女에서 모두 더 有意한 증상 비슷한

頻도로 나타났는데 q60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症狀指標 상호간의 相關關係를 보면 q57과 q57a가 男女 모두에서 매우 關係가 깊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設問 자체가 거의 같은 內容 때문이다. 女子에 있어서 q52와 q60이 매우 關係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症狀가 強調된 q52(최근 땀이 많이졌다)와 體質的 素因을 나타내는 q60의 기전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思料된다. 男子에서는 q26과 q63사이엔 關係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도 症狀가 強調된 q26과 體質的 素因을 나타내는 q63의 기전이 다른 것으로 思料된다.

本 結果에서는 平素에 체내에 열이 많은 것을 자각하는 증상들이 주로 표현되었다. 열이 많아서 옷을 얇게 입고, 갈증 나며, 찬물을 마시고, 이불을 안 덮고, 手足溫, 평소 多汗, 耐寒不耐 등 의 순으로 熱症狀이 나타났다. 男女의 차이점으로는 남자가 熱病機에 대한 一貫性이 높고 더 잘 반응하며, 渴症에 대한 飲冷의 비율이 높고, 여자는 이불을 안 덮는다거나 多汗反應으로 표현한다는 점이다. 이는 陽盛한 남자와 腠理가 細軟한 특징을 잘 표현한다고 解釋된다.

5. 습

Table 7. Cronbach alpha coefficient except corresponding variance in dampness pathogenesis.

Dampness			
Women		Men	
Question No	Cronbach α	Question No	Cronbach α
q90	0.717097	q90	0.676557
q93	0.733004	q91	0.679307
q91	0.738356	q93	0.689035
q88	0.757448	q90a	0.705640
q92	0.783454	q88	0.709464
q90a	0.784172	q92	0.723370

* Standardized Cronbach α coefficient : Women : 0.785821 Men : 0.7347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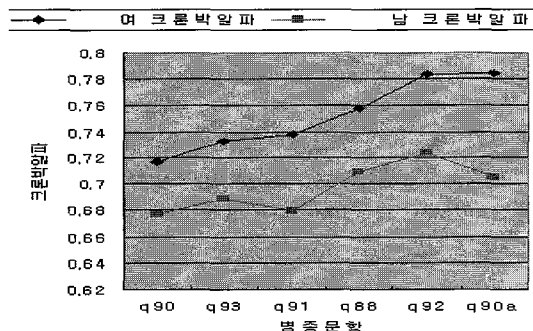


Fig. 5. Gender difference of dampness pathogenesis

<景岳全書·雜證謨·濕證>에서는 “在肌表則爲發熱, 爲惡寒, 爲自汗. 在經絡則爲痺, 爲重, 爲筋骨疼痛, 爲腰痛不能轉側, 爲四肢痿弱痠痛. 在肌肉則爲麻木, 爲附腫, 爲黃疸, 爲按肉如泥不起. 在臟腑則爲嘔惡, 爲脹滿, 爲小水秘澀, 爲黃赤, 爲大便泄瀉, 爲腹痛, 爲後重、脫肛、癰疽 等證”이라 하였고 병리학 교재에서는

頭重如裹, 肢體困乏沈重, 胸悶脘痞嘔惡, 尿少, 水腫腹水, 關節痠痛重着, 面垢眵多, 便溏不爽, 小便渾濁, 婦女白帶, 濕瘡流水, 脚氣 등의 여러 증상을 나열하였다.

Fig. 5에서 보면 우선 濕病은 男子보다 女子의 크론박 알파 값이 높아서 相對的으로 病症의 發顯이 一貫되고 信賴할 수 있어서 중요도도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濕病機의 平均 크론박 알파 값은 0.760292이었다.

Table 5에서 보는 것과 같이 q90(비가 오거나 흐리면 몸이 더 무거워진다)이 男女 공히 가장 頻도가 높은 습병기의 症狀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q93(비가 오거나 흐리면 몸이 추시고 아프다)과 q91(등뼈나 목과 허리가 아프다)은 男女에서 비슷하게 濕證을 표현하는 유의성 있는 증상으로 나타났는데 <醫學入門>에서 “濕多身痛”이라고 한 것처럼 遇雨濕則身體重痛, 腰背頸項筋骨痛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q90a(아침에 얼굴이 푸석푸석하다)와 q88(몸이 무거워서 눕기를 좋아한다) 및 q92(주물러 주면 시원하다) 등이 男女에서 모두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男女에게서 순서의 차이는 있으나 面腫嗜臥, 喜按摩 등이 일반적으로 표현됨을 알 수 있다.

한편 症狀指標 相互간의 相關關係를 보면 男女 모두에서 q90과 q93이 매우 關係가 깊고 女子에 있어서는 q92와 q93이 매우 關係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자는 증상이 거의 흡사한 때문이고 후자는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증상이 아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男子에게 있어서 q88과 q92가 關係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男子가 濕으로 인해 不便함을 느낄 때 按摩보다 다른 것을 선호하는 嗜好 차이로 해석된다.

종합하면 濕病機에서는 비가 오거나 흐리면 몸이 더 무거워지는 症狀이 男女 공히 가장 많고, 아물러 이 때 느끼는 전신적인 筋骨痛과 面腫喜按 등이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濕證에 나타나는 것으로 소개된 面垢多眵나 小便混濁, 嘔惡脘痞 등은 유의성이 없었다. 이는 병리상태로까지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각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증상의 발현이 남녀차이가 거의 없으나 身體重痛嗜臥 등의 대부분 증상이 여자에게 유의성이 더 높은 것은 여자가 陰柔之體로 多血喜靜하는 것과 관련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6. 조

Table 8. Cronbach alpha coefficient except corresponding variance in dryness pathogenesis

Dryness			
Women		Men	
Question No	Cronbach α	Question No	Cronbach α
q134	0.603619	q139	0.608226
q138	0.606177	q138	0.610026
q135	0.630040	q136	0.614762
q139	0.638034	q134	0.617604
q137	0.638670	q135	0.625980
q136	0.664274	q148	0.672050
q148	0.697591	q137	0.682300

* Standardized Cronbach α coefficient : Women :0.676115, Men :0.6694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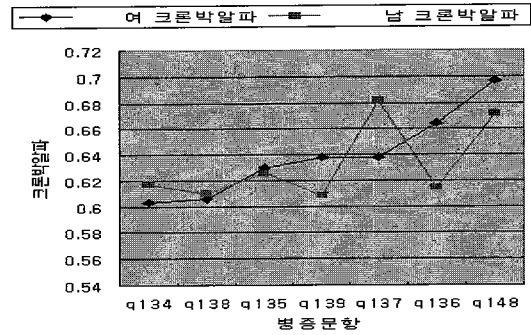


Fig. 6. Gender difference of dryness pathogenesis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는 “燥勝則乾”이라 하였고 <素問 女機原病式>에서는 “諸澁枯潤 乾勁皴揭 皆屬於燥”라 하였으며 병리와 교재에서는 燥證에 乾燥失潤한 症候로 口脣乾燥, 鼻舌乾燥少津, 皮膚乾燥皸裂, 大便乾, 小便少 등이 나타나고 肺陰不足으로 乾咳少痰, 或膠痰難咯, 或痰中帶血 등이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이렇게 보면 기존의 文獻에서 가장 重要하게 다루어진 증상은 皸裂의 乾燥현상인 것으로 생각된다. 燥病機의 平均 크론박 알파 값은 0.672783 이었으며 男女 모두 全般的으로 다른 病機項目에서보다 낮았는데, 燥의 병리가 역사적으로 가장 늦게 關發된 것과 유의성의 상대적 저하가 관계있는 지는 더 연구를 요한다. 또한 男女의 크론박 알파 분포도 大體로 비슷하였다.

q134(머리와 몸의 털에 윤기가 없다)는 女子에게 頻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毛髮이 血之餘이고 남자보다 머리 손질과 상태에 민감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남자는 q139(가려움증이 많다)와 q138(피부가 까칠까칠 하다)의 순으로 頻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燥가 肺와 皮毛를 상하는 일반적인 병리를 그대로 반영한다.

다음으로는 q138과 q135(손톱이 약해서 잘 갈라지고 부러진다)의 순으로 女子에게 頻도가 높았는데 이는 皮膚 건조와 함께 血之與인 爪甲에 症狀이 빈발하는 것이 血臟인 肝을 선천으로 삼는 女子의 생리와 관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q136(발꿈치 뒤가 잘 갈라진다)은 여자보다 男子에게 頻發하고 q137(살이 단단하다)은 여자에게만 유의성이 있었는데 이는 多血한 女子의 肌肉이 남자보다 상대적으로 柔軟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주관 감각의 차이로 해석된다. 男女 모두에서 q148(아픈 증상이 낮에는 가볍고 밤에는 심하다)과 q137(살이 단단하다)은 유의성이 없었다.

한편 症狀指標 상호간의 相關關係를 보면 女子에 있어서 q138과 q139가 매우 상관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皮膚에 나타난 두 증상의 본질이 서로 같은 것임을 의미한다. 男子에서는 q134와 q138이 關係가 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皮膚에 분포하는 營血의 공급으로 毛髮이 얻기 때문에 생리적으로 연속적인 관계인 데서 비롯된다.

燥病機의 증후를 종합하여 보면 女子는 모발 건조, 皮膚 건조, 爪甲脆折, 피부소양, 肉堅, 足跟龜裂 등의 순으로 유의성이 나타났고, 남자는 皮膚瘙癢과 皮膚乾澁, 足跟皮膚龜裂, 毛髮乾燥, 爪甲脆折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皮膚가 乾澁無潤한 症狀이 男女 공히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6종 병기의 분석을 통하여 향후 병리학적인 鑑別 診斷研究에 있어 기존 教材의 病機別 표준증상의 임상표현 빈도와 중요성을 판단하고 남녀의 생리적 차이 등에 따른 환자중심의 예방적 지표증상을 研究하기 위한 重要的 根據資料가 될 수 있다.

또한 병리학 교재나 임상서에 기술된 증상과 본 연구에서의 다빈도 증상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다. 그 원인은 첫째 본 연구대상이 발병단계에 아직 들어가지 않은 素因을 나타내는 반면 醫書들은 대개 발병 이후의 병증인 경우이기 때문이고, 둘째 의서는 복합 병기인 경우도 포함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16종 病機에 각각 分屬하여 복합병기에서 표현되는 증상을 최대한 배제하였기 때문이다.

나아가 개별증상의 統計的인 研究方法에 의해 구축된 痰, 瘀血, 寒, 熱, 濕, 燥病機의 진단지식이 더욱 확고해지고 公共保健 醫療에도 寄與할 수 있을 것으로 思料된다.

결론

문헌에 소개된 병기별 증상과 실제 임상증후와의 비교를 통하여 보다 중요하고 빈출하는 증상이 무엇인지 설문지 연구방법을 통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각 病機別 크론박 알파 값은 痰病(0.835000), 寒病(0.823272), 熱病(0.816344), 濕病(0.760292), 血瘀病(0.692551), 燥病(0.672783)의 순서로 나타나 痰病機 증상과 寒熱濕病機 증상들이 信賴度가 높았다.

다빈도 증상의 연구를 통해 남자와 여자의 서로 다른 생리적 특징이 病機의 증상 발현에 일정한 차이를 일으키며, 발병단계에서의 병기별 증상을 설명하는 기존의 교재나 醫書와 未病 상태에서 16종의 病機別로 나타나는 주요증상을 연구한 본 연구에는 표준증상과 발현빈도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이를 아래와 같이 Table 9로 정리하였다.

Table 9. Standard Symptoms and Gender Differences of Phlegm · Blood Stasis · Cold · Heat · Dryness Pathogenesis.

病機	教材對照 症狀	6病機 多頻度病症	男女 差異	표준 증상
痰	頭重頭痛, 胸悶, 嘔惡, 咽喉有物梗塞感, 昏蒙, 腫塊, 脈滑	眩暈心悸, 胸悶惡心, 寒熱, 流注痛	여: 心悸 寒熱多 남: 痛症流注多	眩暈, 心悸
血瘀	疼痛, 腫塊, 出血, 寒熱晝輕夜重, 腹部腫塊, 腹部不便感, 善忘, 如狂, 口中燥渴不欲飲, 口脣爪甲青紫, 舌質紫暗, 肌膚甲錯, 脈細澀或結代, 大便漆黑, 皮膚紫癍	下腹痛有定處, 下腹牽引痛 및 堅硬壓痛, 월경관련증후, 大便黑色, 口脣乾燥, 晝輕夜重	여: 月經色黑, 生理痛 남: 下腹牽引痛 및 堅硬壓痛	下腹痛有定處, 壓痛
寒	惡寒喜暖, 口淡不渴, 面色蒼白, 肢冷倦臥, 小便清長, 大便稀瀉, 舌淡苔白潤滑	手足冷症, 下腹冷症, 觸寒則手足青紫, 飲冷即便軟或瀉, 畏寒喜溫, 外陰冷	여: 下腹冷, 陰冷多 남: 手足冷 위주	手足冷, 下腹冷症

熱	發熱喜涼, 口渴飲冷, 面紅目赤, 煩躁不寧, 小便短赤, 大便燥結, 舌紅苔黃而乾燥, 脈數	被薄衣, 口渴, 飲冷, 不被衾具, 手足溫, 脣少, 多汗, 耐寒不耐暑	여: 內熱感, 不被衾具, 平素多汗 남: 內熱口渴, 頻飲冷水	脣少, 內熱自覺, 不喜衣被
濕	頭重如裹, 肢體困乏沈重, 胸悶脘痞嘔惡, 尿少, 水腫腹水, 關節痠痛重着, 面垢多, 便溏不爽, 小便渾濁, 婦女白帶, 濕瀉流水	遇雨濕則身體重痛, 腰背頸項筋骨痛, 面腫嗜臥, 喜按摩	남녀 동일	비가 오거나 흐리면 身體重痛
燥	皮膚毛髮不潤乾燥, 癢痒症多, 爪甲脆折, 皮膚皸裂, 足跟乾裂	皮膚毛髮不潤乾燥, 爪甲脆折, 皮膚皸裂, 肉堅, 足跟龜裂	여: 모발피부조감 건조 남: 피부소양, 즉근피부균열	皮膚 乾澀無潤

감사의 말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한방바이오퓨전연구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Grant No. B050010.

참고문헌

- hipig(ID), 大陸歷年中醫統編教材의 評論, 中國醫藥大學 華佗 BBS <http://bbs.cmu.edu.tw/gmore?ChiMedTextbo&F00009OH&1>
- 中國中醫研究院 主編. 中醫證候鑑別診斷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7.
- 中醫基本理論教研組. 中醫基本理論教材, 廣州中醫學院, 1972.
- 한국한의학회연구소. 『한의진단명과 진단요건의 표준화 연구 I, II, III』. 1994-1997.
- 이상훈, 이인선. 辨證유형에 따른 한방부인과 환자의 조사연구. 제19회 전국한의학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251-254, 1997.
- 전란희, 이인선. 韓方婦人科의 辨證類型에 관한 調查研究.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 12(1):231-252, 1999.
- 권혁, 이인선, 김규곤, 엄현섭, 김중원, 지규용. 설문지 분석법에 의한 肝·心·脾·肺·腎病의 표준증상 및 남녀차이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4):1057-1062, 2006.
- 김강태, 엄현섭, 이인선, 김중원, 지규용. 설문지 분석법에 의한 氣虛 血虛 氣滯 陰虛 陽虛證의 표준증상 및 남녀차이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6):1742-1748, 2006.
- 전국한의과대학병리학교실 공편. 한방병리학. 일지사, p 79, 2002.
- 鄧鐵濤主編. 中醫診斷學, 人民衛生出版社, p 377, 1987.
- 전국한의과대학 병리학교실편. 한방병리학. 일지사, p 121, 164, 1998.
- 黃子立編. 中醫百家醫論薈萃. 重慶出版社, pp 155-159, 1988.
- 張介賓. 景岳全書上.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p 26-28.